

일지역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흡연관련 특성

김성우

영남이공대학교 보건과학계열

A study of College Students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in one region

Sung-Woo Kim

Division of Health and Scienc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Development of a healthy college life, and effective for smoking cessation programs for education is to utilize as a basis for.

Methods: The study employs frequency analysis, cross-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rough SPSS Win 17.0 on 296 (84.6% of total participants) from the entire participants of 350. The significance test is delivered with χ^2 -test.

Results: 1) The participants consist of 47.7% (147) males and 52.3% (161) females. 78.2% (241) ha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at high school. 61.7% (190) has parents who are smoking. 40.9% (126) answers that they are currently smoking while 59.1% (182) answers that they are not. 2) When asked about their perception on quitting smoking, 81.2% (250) says that non-smokers are distressed by others' smoking. 74.0% (228) has unpleasant experience with cigarette smoke. 3)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smoking cessation program at high school and smoking shows that 63.8% of the ones who have experience of the program are non-smokers while 68.7% of those with no experience of the program are smokers. 4) Among those who have tried to quit smoking, 73.9% hav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at high school. 31.8% of these participants also reveal their interest in the cessation program. 5)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habits, th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at high school is closely related to non-smoking while current smoking habit is highly related to the strong interest in participation of cessation program. Also, the more interest they have in participating, the stronger needs they feel for smoking prevention

접 수 일 : 2012년 7월 2일, 수 정 일: 2012년 8월 17일, 채택일: 2012년 8월 20일

† 교신저자 : 김성우 ((705-703)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74)

Tel: 053-650-9426, Fax: 053-650-5722, E-mail: ksw9312@hanmail.net

program at college.

Conclusion: Therefore, the last phase of education-related courses at the University of educated and credits granted through open non-smoking pledge, non-smoking club, non-smoking camps, training programs, such as smoking in non-smoking education and programs for students interested in openness and participation must be done well

Key words: College Student, Smoking behavior,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21세기 시작된 후에도 국제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어 지고 있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질병요인과 사망의 원인 중 예방이 가장 가능한 요인이 흡연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문실과 김애경, 2001).

근래에 들면서 흡연이 건강에 해로우며 폐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흡연행위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비흡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면서 건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건강사업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흡연을 추방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추진되어 지고 있다. 특히, 금연서약, 흡연 해독실험, 금연 동지회 결성, 금연교실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금연사업이 진행되면서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현옥, 2002).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부터 흡연행태에 대한 연구와 금연교육의 필요성 및 관련요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국내 인구 중 전체 흡연율이 70%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김현옥, 2002), 청소년과 여성흡연 및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습관행위로 흡연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신정 등, 2002). 대학생들은 일생 중에서 최고의 건강상태를 향유하는 시기이므로 건강의 진가를 망각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잠재적인 건강의 위험을 안고 있다(김인숙, 2003). 대학생활에서의 흡연은 대학생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올바른 행동기준과 자의식 형성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다양화 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긴장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생활을 형성해야 하는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때에 흡연과 음주 등이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모순이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회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하유, 2006).

대학생이 흡연을 하는 원인은 청소년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청소년 자신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고 둘째, 가정에서의 문제, 시험과 성적에서의 문제, 그리고 취업에 대한 우울도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중심에서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흡연과 음주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셋째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서 자기 자유를 분출하는 성인의 시기로 대학생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화·드라마·광고 등에서 나오는 주인공과 배우들의 흡연모습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있다(황혜자, 2006). 우리나라 흡연자 중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는 경향을 볼 때, 대학생의 학교생활에서 흡연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금연캠프, 금연서약)와 금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적용(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학습과정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간 발달과정에 있어서 성숙완료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국가의 지적재산이며 지역사회나 국가장래의 지도자 역할을 할 귀중한 국가의 자산으로 이들의 건강문제는 개인적인 필요성만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입시준비 때문에 모든 것이 억압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방된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학직후 음주·흡연 등 과거에 성인에게만 자유롭게 허락되었던 습관을 점차 즐기게 되고 그 결과 일부 대학생은 심할 정도로 습관화 되며(김신정 등, 2002), 일부 여대생들의 흡연은 미래에 임신과 출산 등 모성역할을 해야 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서미경, 2011). 따라서 흡연습관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금연교육과 관련한 제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은 대학교육에서의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흡연관련 연구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는 “김애숙(2003)의 일지역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신성례(1997)의 흡연 청소년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과 효과에 관한 연구, 박우연(2007)초등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이외에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인희(2005)남자 대학생 흡연자의 목표달성방법 합의가 금연목표달성에 미치는 효과, 김인숙(2003)의 여대생의 흡연

체험과 흡연예방에 관한 연구, 하유(2006)의 공감적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흡연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등으로 실질적인 대학생의 흡연행태와 흡연관련 특성에 관한 부분의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시점에서 대학생들의 건강교육을 위한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시점이나,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신정 등, 2002). 따라서 일부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금연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 개발에 연구의 필요성을 두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금연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두었으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흡연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 2) 연구대상자의 금연교육 및 금연 시도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 3) 연구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구지역 소재 일부 대학생(350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부 지역적 특성과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과 한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2012년 4월 09일부터 4월 27일까지 3주간 조사되었으며, 연구대상은 대구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 1곳과 4년제 대학교 1곳의 일부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Y전문대학교와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대학생 중에서 350명을 임의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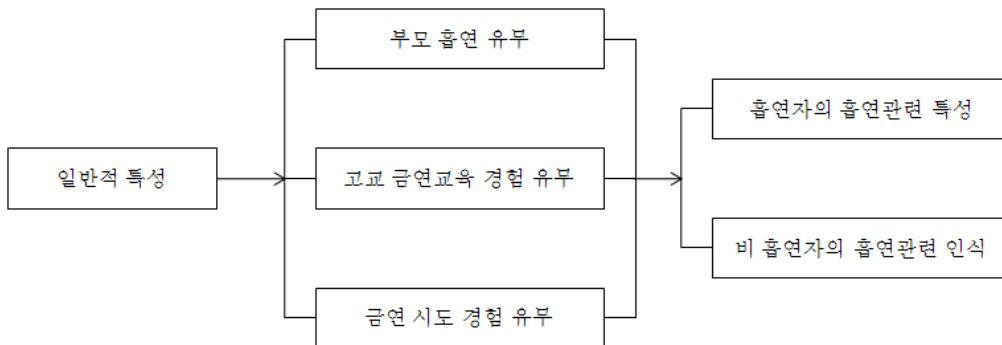
이 연구의 도구는 하유(2006)의 “공감적 금연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흡연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내용을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자가 흡연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전에 30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대상자의 종교부분의 질문을 종교유무로, 자

가판단 경제상태의 질문을 삭제하여 수정보완 후 본 설문지로 확정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훈련된 대학생 조사원이 2인 1조가 되어 각 대학별 조사지역에서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질문지를 배부하여 연구에 대한 당위성과 내용을 설명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케 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9문항, 흡연행태 16문항, 금연프로그램문항 및 보건교육 관련문항 7문항 등 총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 잘못 기재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연구대상자 350명중 308명(전체 88.0%)의 응답자 자료를 Excel Program으로 코딩하고 SPSS Win 17.0에 의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로 하였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지수는 0.663였다.

4.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기본가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흡연시작시기, 흡연

시작시기, 흡연량(1일) 등의 흡연관련 특성 형성에 부모흡연유무와 고교 금연교육 경험유무, 금연

시도 경험유무가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비흡연자의 흡연관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7.7%(147명), 여자가 52.3%(161명)이었고, 전공계열은 비보건계열이

54.2%(167명)이고, 보건계열이 45.8%(141명)이었다. 거주형태는 자가인 경우 69.2%(213명), 자취/하숙의 경우가 30.8%(95명)이었고, 건강상태(자가판단)는 불건강하다가 8.8%(27명), 보통이다가 39.9%(123명), 건강하다가 51.3%(158명)으로 나타났다. 고교 금연교육 경험여부에서는 있다가 78.2%(241명)이고 없다가 21.8%(67명)이었고, 부모의 흡연여부는 한다가 61.7%(190명), 안한다가 38.3%(118명)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흡연여부는 한다가 40.9%(126명)이고, 안한다가 59.1%(182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 원	%
성별	남	147	47.7
	여	161	52.3
전공계열	비보건계열	167	54.2
	보건계열	141	45.8
거주형태	자가	213	69.2
	자취/하숙	95	30.8
건강상태(자가판단)	불건강하다	27	8.8
	보통이다	123	39.9
	건강하다	158	51.3
고교금연교육 경험	있다	241	78.2
	없다	67	21.8
부모흡연	한다	190	61.7
	안한다	118	38.3
흡연유무	한다	126	40.9
	안한다	182	59.1
	계	308	100.0

2. 연구대상자의 흡연인식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흡연인식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 인식에 대해 있다가 81.2%(250명)이고, 보통이다가 15.3%(47명), 없다가 3.6(11명)으로 나타났

<표 2> 연구대상자의 흡연인식 관련 특성

	구 분	인 원	%
비흡연자피해 인식	있다	250	81.2
	보통이다	47	15.3
	없다	11	3.6
타인 담배연기 느낌	괜찮다	5	1.6
	보통이다	75	24.4
	불쾌하다	228	74.0
효과적 금연 프로그램	학교금연교육	48	15.6
	전문기관금연교육	197	64.0
	기타	63	20.5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	없다	76	24.7
	보통이다	159	51.6
	있다	73	23.7
대학내 흡연예방보건교육	필요없다	33	10.7
	보통이다	103	33.4
	필요하다	172	55.8
효과적 금연정책	금연구역 확대	47	15.3
	담배값 인상	114	37.0
	단속강화	120	39.0
	금연홍보확대	27	8.8
여성흡연 인식	긍정	63	20.5
	보통	59	19.2
	부정	186	60.4
긍정이유(N=63)	자신의 권리	58	92.1
	적당량 허용	5	7.9
부정이유(N=186)	불량 이미지	113	60.8
	불건강	73	39.2
	계	308	100.0

다. 타인 담배연기 느낌에서 괜찮다가 1.6%(5명)이고 보통이다가 24.4%(75명), 불쾌하다가 74.0%(228명)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으로 학

교금연교육이 15.6%(48명)이고, 기타가 20.5%(63명), 전문기관 금연교육이 64.0%(197명)으로 가장 높았다.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에서 없다가 24.7%(76

명)이고, 보통이다가 51.6%(159명), 있다가 23.7%(73명)이었고, 대학내 흡연예방보건교육의 필요성에서 필요없다가 10.7%(33명)이고, 보통이다가 33.4%(103명), 필요하다가 55.8%(172명)으로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는 금연구역 확대가 15.3%(47명)이고, 금연홍보 확대가 8.8%(27명), 담배값 인상이 37.0%(114명), 단속 강화가 39.0%(120명)으로 높았다. 여성의 흡연인식에서는 긍정이 20.5%(63명)이고, 보통이 19.2%(59명), 부정이 60.4%(186명)으로 아직까지 여성흡연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

3. 연구대상자의 성별 흡연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흡연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흡연유무에서 흡연을 한다는

남자가 66%, 여자가 18%로 나타났으며, 고교금연교육 경험은 경험 있다가 남자 68.7%, 여자 87%이며, 여성의 흡연 인식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남자 92.6%, 여자 58.4%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흡연 시작 시기는 남자는 중학교이전에서 51.5%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고등학교가 48.3%로 높았으며, 대학이후도 31.0%로 나타나 대학에서의 흡연시작 여학생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흡연시작 계기에서 남자는 호기심으로가 53.6%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친구권유가 37.9%로 가장 높았다. 향후 금연계획에서는 있다가 남자 79.4%, 여자는 흡연자 모두가 금연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흡연유무($P < 0.01$), 고교금연교육경험, 흡연시작시기, 주 흡연장소, 흡연량(1일), 흡연사실은닉, 향후금연계획에서 각각($p < 0.01$)에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성별 흡연관련 특성

구 분		남자(%)	여자(%)	χ^2
흡연유무	한다	97(66.0)	29(18.0)	73.158**
	안한다	50(34.0)	132(82.0)	
고교 금연교육 경험	있다	101(68.7)	140(87.0)	15.034**
	없다	46(31.3)	21(13.0)	
여성흡연인식	긍정	32(21.8)	31(19.3)	2.270
	보통	23(15.6)	36(22.4)	
	부정	92(62.6)	94(58.4)	
계		147(100.0)	161(100.0)	

** $P < 0.01$

<표 3-1> 흡연자의 성별 흡연관련 특성

구 분		남자(%)	여자(%)	χ^2
흡연시작 시기	중학교 이전	50(51.5)	6(20.7)	9.783**
	고등학교	34(35.1)	14(48.3)	
	대학교 이후	13(13.4)	9(31.0)	
흡연시작 계기	스트레스해소	25(25.8)	9(31.0)	5.299
	호기심	52(53.6)	9(31.0)	
	친구권유	20(20.6)	11(37.9)	
주 흡연장소	술집/커피숍	39(40.2)	8(27.6)	12.173**
	골목길/화장실	24(24.7)	17(58.6)	
	지정흡연장소	34(35.1)	4(13.8)	
흡연량(1일)	5개피이하	14(14.4)	13(44.8)	20.068**
	반갑가량	42(43.3)	15(51.7)	
	한갑이상	41(42.3)	1(3.4)	
금연시도경험	있다	71(73.2)	17(58.6)	2.252
	없다	26(26.8)	12(41.4)	
흡연사실은닉	숨긴다	10(10.3)	12(41.4)	14.954**
	아니다	87(89.7)	17(58.6)	
향후 금연계획	있다	77(79.4)	29(100.0)	7.108**
	없다	20(20.6)	0(0.0)	
계		97(100.0)	29(100.0)	

** P < 0.01

4. 연구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다. 흡연유무에서 비보건계열이 62.9%이고 보건계열이 14.9%로 나타났다.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의 필요성 부분

에서도 비보건계열 53.3%, 보건계열 58.9%로 조금 더 높았다. 향후 금연계획에서는 있다가 비보건계열 82.9%, 보건계열 90.5%로 전공계열 구분 없이 금연에 대한 계획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비흡연자 피해인식 ($P<0.01$)과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P<0.05$)에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χ^2
흡연유무	한다	105(62.9)	21(14.9)	72.808
	안한다	62(37.1)	120(85.1)	
여성흡연인식	긍정	41(24.6)	22(15.6)	3.924
	보통	29(17.4)	30(21.3)	
	부정	97(58.1)	89(63.1)	
비흡연자피해 인식	있다	125(74.9)	125(88.7)	11.399**
	보통이다	32(19.2)	15(10.6)	
	없다	10(6.0)	1(0.7)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	필요없다	26(15.6)	7(5.0)	9.028*
	보통이다	52(31.1)	51(36.2)	
	필요하다	89(53.3)	83(58.9)	
계		167(100.0)	141(100.0)	

* P < 0.05, ** P < 0.01

<표 4-1> 흡연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χ^2
흡연량(1일)	5개피이하	22(21.0)	5(23.8)	0.098
	반갑가량	48(45.7)	9(42.9)	
	한갑이상	35(33.3)	7(33.3)	
금연시도경험	있다	72(68.6)	16(76.2)	0.482
	없다	33(31.4)	5(23.8)	
향후 금연계획	있다	87(82.9)	19(90.5)	0.761
	없다	18(17.1)	2(9.5)	
계		105(100.0)	21(100.0)	

5. 연구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다. 흡연유무에서 자가의 35.7%와 자취/하숙의 52.6%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취/하숙을 하는 학생들의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교금연교육경험에서 자가의 81.2%, 자취/하숙의 71.6%가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프로그램 참여 의사에서 자가가 21.1% 자취/하숙 29.5%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의 흡연량(1

일)에서 반갑가량이 자가가 44.7%, 자취/하숙이 46.0%에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흡연유무와 흡연량(1일) (P<0.01)에서 나타났다.

<표 5> 연구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자가(%)	자취/하숙(%)	χ^2
흡연유무	한다	76(35.7)	50(52.6)	7.809**
	안한다	137(64.3)	45(47.4)	
고교 금연교육 경험	있다	173(81.2)	68(71.6)	3.588
	없다	40(18.8)	27(28.4)	
금연프로참여의사	없다	54(25.4)	22(23.2)	2.541
	보통이다	114(53.5)	45(47.4)	
	있다	45(21.1)	28(29.5)	
계		213(100.0)	95(100.0)	

** P < 0.01

<표 5-1> 흡연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자가(%)	자취/하숙(%)	χ^2
흡연량(1일)	5개피이하	9(11.8)	18(36.0)	14.071**
	반갑가량	34(44.7)	23(46.0)	
	한갑이상	33(43.4)	9(18.0)	
금연시도경험	있다	63(82.9)	25(50.0)	15.493**
	없다	13(17.1)	25(50.0)	
향후 금연계획	있다	65(85.5)	41(82.0)	0.281
	없다	11(14.5)	9(18.0)	
계		76(100.0)	50(100.0)	

** P < 0.01

6. 연구대상자의 부모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부모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다. 부모흡연 유무에서 부모가 흡연을 하는 대상자 42.6%가 현재

본인도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가 흡연을 안 하는 대상자 61.9가 현재 본인도 흡연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에서 부모가 흡연을 하는 대상자 23.2%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흡연을 안 하는 대상자 24.6%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흡연을 하는 대상자 45.7%가 중학교이전 으로 유의한 차이는 흡연량(1일) ($P < 0.05$)에서만
에 흡연을 시작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나타났다.

<표 6> 연구대상자의 부모흡연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한다(%)	안한다(%)	χ^2
흡연유무	한다	81(42.6)	45(38.1)	0.609
	안한다	109(57.4)	73(61.9)	
고교 금연교육 경험	있다	152(80.0)	89(75.4)	0.896
	없다	38(20.0)	29(24.6)	
금연프로참여의사	없다	48(25.3)	28(23.7)	0.131
	보통이다	98(51.6)	61(51.7)	
	있다	44(23.2)	29(24.6)	
계		190(100.0)	118(100.0)	

<표 6-1> 흡연자의 부모흡연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한다(%)	안한다(%)	χ^2
흡연시작 시기	중학교 이전	37(45.7)	19(42.2)	0.148
	고등학교	30(37.0)	18(40.0)	
	대학교 이후	14(17.3)	8(17.8)	
흡연시작 계기	스트레스해소	21(25.9)	13(28.9)	1.770
	호기심	37(45.7)	24(53.3)	
	친구권유	23(28.4)	8(17.8)	
주 흡연장소	술집/커피숍	29(35.8)	18(40.0)	1.113
	골목길/화장실	29(35.8)	12(26.7)	
	지정흡연장소	23(28.4)	15(33.3)	
흡연량(1일)	5개피이하	21(25.9)	6(13.3)	6.446*
	반갑가량	30(37.0)	27(60.0)	
	한갑이상	30(37.0)	12(26.7)	
금연시도경험	있다	56(69.1)	32(71.1)	0.054
	없다	25(30.9)	13(28.9)	
향후 금연계획	있다	69(85.2)	37(82.2)	0.190
	없다	12(14.8)	8(17.8)	
계		81(100.0)	45(100.0)	

* $P < 0.05$

7. 연구대상자의 고교 금연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고교 금연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다. 흡연유무에서 금연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 63.8%가 흡연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 68.7%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시도 경험유무에서는 고교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81.3%가 있었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는 50.0%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연계획에서는 고교금연교육 경험유무에 관계없이 각각 85.0%와 82.6%가 금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에서 ($P < 0.05$)로, 금연시도 경험 ($P < 0.01$)에서 나타났다.

<표 7> 연구대상자의 고교 금연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있다(%)	없다(%)	χ^2
흡연유무	한다	80(33.2)	46(68.7)	27.272
	안한다	161(66.8)	21(31.3)	
금연프로그램참여의사	없다	60(24.9)	16(23.9)	7.456*
	보통이다	132(54.8)	27(40.3)	
	있다	49(20.3)	24(35.8)	
대학내 흡연예방보건교육	필요없다	23(9.5)	10(14.9)	1.753
	보통이다	83(34.4)	20(29.9)	
	필요하다	135(56.0)	37(55.2)	
효과적 금연정책	금연구역 확대	37(15.4)	10(14.9)	2.538
	담배값 인상	92(38.2)	22(32.8)	
	단속강화	94(39.0)	26(38.8)	
	금연홍보확대	18(7.5)	9(13.4)	
계		241(100.0)	67(100.0)	

* $P < 0.05$

<표 7-1> 흡연자의 고교 금연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있다(%)	없다(%)	χ^2
흡연시작 시기	중학교 이전	35(43.8)	21(45.7)	0.416
	고등학교	32(40.0)	16(34.8)	
	대학교 이후	13(16.3)	9(19.6)	
흡연시작 계기	스트레스해소	25(31.3)	9(19.6)	2.083
	호기심	37(46.3)	24(52.2)	
	친구권유	18(22.5)	13(28.3)	

구 분		있다(%)	없다(%)	χ^2
주 흡연장소	술집/키피숍	32(40.0)	15(32.6)	4.029
	골목길/화장실	21(26.3)	20(43.5)	
	지정흡연장소	27(33.8)	11(23.9)	
흡연량(1일)	5개피이하	18(22.5)	9(19.6)	0.236
	반갑가량	35(43.8)	22(47.8)	
	한갑이상	27(33.8)	15(32.6)	
금연시도경험	있다	65(81.3)	23(50.0)	13.541**
	없다	15(18.8)	23(50.0)	
향후 금연계획	있다	68(85.0)	38(82.6)	0.125
	없다	12(15.0)	8(17.4)	
계		80(100.0)	46(100.0)	

** P < 0.01

8. 흡연자의 금연시도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흡연자의 금연시도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다.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 73.9%가 고교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에서는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 31.8%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량(1일)에서는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 46.6%가 반갑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시도 경험이 없는 대상자도 흡연량(1일)이 반갑가량으로 가장 높았다. 향후 금연계획에서는 금연시도 경험유무를 떠나 87.5%와 76.3%로 모두 금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고교금연교육 경험 (P<0.01)과 주흡연장소(P<0.05)에서만 나타났다.

<표 8> 흡연자의 금연시도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

구 분		있다(%)	없다(%)	χ^2
고교 금연교육 경험	있다	65(73.9)	15(39.5)	13.541**
	없다	23(26.1)	23(60.5)	
금연프로참여의사	없다	15(17.0)	5(13.2)	3.763
	보통이다	45(51.1)	14(36.8)	
흡연시작 시기	있다	28(31.8)	19(50.0)	5.375
	중학교 이전	45(51.1)	11(28.9)	
	고등학교	30(34.1)	18(47.4)	
	대학교 이후	13(14.8)	9(23.7)	

구 분		있다(%)	없다(%)	χ^2
흡연시작 계기	스트레스해소	27(30.7)	7(18.4)	3.532
	호기심	43(48.9)	18(47.4)	
	친구권유	18(20.5)	13(34.2)	
주 흡연장소	술집/키피숍	32(36.4)	15(39.5)	8.960*
	골목길/화장실	23(26.1)	18(47.4)	
	지정흡연장소	33(37.5)	5(13.2)	
흡연량(1일)	5개피이하	16(18.2)	11(28.9)	1.867
	반갑가량	41(46.6)	16(42.1)	
	한갑이상	31(35.2)	11(28.9)	
향후 금연계획	있다	77(87.5)	29(76.3)	2.486
	없다	11(12.5)	9(23.7)	
계		88(100.0)	38(100.0)	

* $P < 0.05$, ** $P < 0.01$

9. 연구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고교시절 금연교육경험이 있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

었으며, 흡연을 할수록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을수록 대학내 흡연 예방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9>.

<표 9> 연구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간 상관관계

구분	흡연 유무	고교금연 교육경험 유무	부모흡연 여부	금연 프로그램 참여의사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 필요성
흡연유무 ¹⁾	1.00				
고교금연교육경험유무 ²⁾	-.298**	1.00			
부모흡연여부 ³⁾	.044	.054	1.00		
금연프로그램참여의사 ⁴⁾	-.268**	.098	.021	1.00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 필요성 ⁵⁾	.057	-.037	-.032	.312**	1.00

주 ** : $0.01 < P$

- 1) 흡연유무 : ① 한다 ② 안한다
- 2) 고교금연교육경험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 3) 부모흡연 : ① 한다 ② 안한다
- 4)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 : ① 없다 ② 보통이다 ③ 있다
- 5)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 필요성 : ① 필요없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하다

IV. 논 의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금연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연구이다.

김현옥(2002)의 금연프로그램이 성인흡연자의 금연 및 흡연행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하유(2006)공감적 금연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흡연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와 김문실과 김애경(2001)의 일부 여대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금연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 금연을 시도했다가 성공하기도 하나, 흡연에 대한 태도, 금연의지 등에 의해 금연성공이 좌우되므로 적절한 금연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호기심(48.4%)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흡연자의 금연시도 경험(69.8%)도 있었으며 향후 금연계획(84.1%)과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31.8%)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김현옥(2002)의 연구의 적절한 금연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단속강화(39.0%)와 담배값 인상(37.0%) 순이었고, 대학내 흡연예방보건교육이 필요하다(55.8%)고 나타나 대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이 성인흡연자와 유사한 경향 속에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신정 등(2002)의 일부 대학생의 흡연실태 연구에서 대학생의 흡연시작 시기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는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이전(44.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흡연시작 연령의 연소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신정 등(2002)의 연구와 김인숙(2003)의 여대생의 흡연체험 연구에서 가족 중 아버지의 흡연이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수동적 흡연으로 인해 자녀 성장 후 흡연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부모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부모흡연으로 현재 흡연하는 대학생이 높은(42.6%) 것으로 보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김신정 등(2002)에서 높았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다(20.3%)는 대상자는 높지 않았으나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이 필요하다(56.0%)는 대상자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학에서 마땅한 흡연관련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에 대학내 흡연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높았다.

최인희(2005)의 남자대학생 흡연자의 목표달성 방법의 합의가 금연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김문실과 김애경(2001)의 일부 여대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은 흡연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금연할 의사가 크지 않아 금연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연하는 친구, 습관성, 금연의도, 금연에 대한 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금연중재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흡연에 대한 피해 인식에 대해서 타인에게 불쾌함(88.7%)을 끼친다고 대부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호기심(48.4%)과 스트레스 해소(27.0%)를 위해 흡연을 시작하였고 금연시도 경험(69.8%)도 높았다. 향후 금연계획과 담배값 인상 시 금연을 하겠다(87.3%)고 하였으며, 대학내 흡연예방 보건교육의 필요성(55.8%)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최인희(2005)의 연구보다 일부 인식하는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개별적인 금연중재가 어렵다면 대학에서의 흡연예방에 대한 보건교육프로

그램의 시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김현옥(2002)의 금연프로그램이 성인흡연자의 금연 및 흡연행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금연프로그램의 영향력이 금연을 지속시키는데, 가장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며, 금연 교육의 효과는 흡연자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금연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자(68.7%)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은 금연교육 경험유무를 떠나 조사대상자 중 85%가 금연계획이 있었다. 이는 대학교육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금연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세부적으로 집단에 대한 일률적인 교육보다 각 개인별, 소그룹별 금연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 일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흡연행태와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금연교육을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두고 지역사회 대학생 남녀 308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이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47.7%(147명), 여자가 52.3%(161명)이었고, 고교 금연교육 경험여부에서는 있다가 78.2%(241명)이고 부모의 흡연여부는 한다가 61.7%(190명)이었으며, 본인 흡연여부는 한다가 40.9%(126명)이고, 안한다가 59.1%(182명)이었다.
- 2) 흡연자의 흡연관련 특성에서 흡연자의 흡연 시작 시기는 중학교 이전이 44.4%(56명)이고, 고등학교가 38.1%(48명), 대학교이후가 17.5%(22명)이었고, 흡연시작의 계기는 호기

심이 48.4%(61명)으로 가장 높았다.

- 3) 고교 금연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흡연유무에서 금연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 63.8%가 흡연을 안하고, 금연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 68.7%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금연시도경험 유무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 73.9%가 고교 금연교육 경험이 있었고,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에서는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 31.8%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흡연관련 특성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고교시절 금연교육경험이 있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과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었으며, 흡연을 할수록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유의하게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금연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을수록 대학내 흡연예방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흡연대학생들의 흡연시작 시기가 중학교 이전(44.4%)에서 흡연시작의 계기는 호기심(48.4%)이,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끼친다(88.7%)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타인의 담배연기의 느낌에서 불쾌하다(74.0%)의 인식과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에서의 금연교육(64.0%)을 선호하였고, 대학내 흡연예방보건교육의 필요성(55.8%)에서도 높은 관심이 있었다. 내년부터 판매용 담배 포장지에 폐암관련 질병에 대한 사진을 게재하여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고 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상승에 따른 국가 보건정책 마련과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금연구역 확대지정, 담배값 인상, 흡연단속 및 처벌강화, 금연홍보영상, 대국민 캠페인 등 현실성과 내실이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금연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대학에서도 교양관련 강좌 개설과 학점부여를 통한 금연서약, 금연동아리, 금연캠프 등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흡연학생을 위한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규. 천안지역대학생의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 충동성, 우울 및 불안정도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2. 김광숙. 금연관련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흡연행위, 지식, 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3. 김경선. 여대생의 흡연행위에 관한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1;15(1)1-12.
4. 김신정, 문선영, 한경순. 일부대학생의 흡연실태-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2;13(1)147-160.
5. 김인숙. 여대생의 흡연체험[박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6. 김애숙. 일지역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부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7. 김영복, 하은희, 김주영, 윤영옥. 대학생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진흥학회지 2001;18(1)1-15.
8. 김현옥. 금연프로그램이 성인흡연자의 금연 및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2;B(1)5-16.
9. 김택민. 고교생들에 대한 금연교육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0.
10. 김태형. 흡연행태와 관련된 심리적요인[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8.
11. 김문식, 김애경. 일부여대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지 2001; 제6호 222-247.
12. 문인숙. 금연교육프로그램이 흡연병사들의 흡연에 대한지식, 태도 및 금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13. 박경신.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3; 14(2)232-241.
14. 박선애. 계획적 행위이론에 대한 여대생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박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6.
15. 박우연. 초중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7.
16. 신성례. 흡연청소년을 위한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에 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97.
17. 이규은, 김남선. 대학생의 흡연행위와 강인성간의 상관관계. 기본간호학회지 2001;8(1) 51-68.
18. 이주열, 이윤석. 금연교실프로그램이 흡연행위에 미치는 효과. 대한보건협회학습지 2002; 28(4)380-384.
19. 안혜영. 대학생의 금연행위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001;7(3)371-382.
20. 윤석준, 하범만, 강종원, 강혜정. 우리나라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질병부담. 예방학회지 2001;34(3)191-199.
21. 황혜자. 공감적 금연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흡연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2. 현혜진. 일부대학생의 금연의도예측을 위한 계획된 행위이론.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8; 9(1)117-127.
23. 최지호, 양윤준, 서홍관. 우리나라 의과대학생의 흡연실태 및 흡연과 금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정의학학회지 1995;16(2)157-171.

24. 최인희. 남자대학생흡연자의 목표달성방법 합
의가 금연목표달성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
문]. 전남: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5.
25. 최은영. 자기효능증진 금연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자의 흡연량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
과[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2011.
26. 하 유. 공감적 금연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흡연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학
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